

2020 중국 환경산업 뉴스레터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국사무소



KEITI
미래를 여는 환경솔루션

05
MAY



C O N T E N T S

I. 중국 정부 소식

- 1.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요약 1
- 2. ‘14.5’ 계획, 오존 규제 강화가 전망되는 ‘푸른하늘 보위전’ 3

II. 중국 주요 환경 뉴스

- 3. 중국 의료폐기물 처리능력 시급히 강화해야 5
- 4. 코로나-19가 중국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7

III. 중국 환경 산업 동향

- 5. 스마트 친환경 산업 시장 현황 및 전망 9

IV. 월간포커스

- 6. 중국 최대의 연중 정치행사, 양회(两会) 12
- 7. 지난 5년간 양회, 환경보호 관련 의제 요약 14
- 8. 【기고문】 K-Eco도 글로벌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KEITI 중국사무소 김종균) 18

1.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요약

◆ 시진핑(习近平) 총서기 직접 회의 주제

5월 14일 개최된 중국공산당(中国共产党) 중앙정치국(中央政治局)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 회의에서는 국내외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분석하고 상시 방역 조치의 효과를 검토했으며, 산업 공급 사슬(供应链, supply chain)¹⁾의 안정성과 경쟁력에 대해 논의했다. 시(习) 총서기는 “현재 중국 내 방역 현황은 비교적 호전되었으나 국외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고 복잡한 국면이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중국의 임무는 여전히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며 “중국은 느슨한 마음가짐을 버리고 경각심과 책임감으로 뭉쳐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임해 승리로 이끌어 빈곤을 퇴치하고(脱贫) 샤오강 사회(小康社会)²⁾의 성공적인 건설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习) 총서기는 “중점 지역과 장소에서의 재발을 확실하게 방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헤이룽장성·지린성 등 최근 집중 발생지역에는 맞춤형 강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고, 후베이성(湖北省)과 우한시(武汉市)는 거주 지역에 대한 통제 강화 및 보완, 핵산 검사(核酸检测) 등을 계속하여 실시하며, 국무원 연합방위체제(国务院联防联控机制)인 우한연락 사무소(武汉联络组)³⁾는 주민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특히 베이징시(北京市)는 전국 ‘양회(两会)⁴⁾ 기간 동안의 전염병 방지 업무를 강화해야 하고, 교사와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도록 수업 재개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감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간호 및 면회 관리를 세분화 하며, 진료 질서를 정상화하여 원내(院内) 감염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1 : 시진핑 총서기 주요 강조사항>



방역 작업 중인 우한시
자료출처: 인민망(2020.5.14)

◆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汉市)

- 거주지역 통제 강화 및 보완
- 핵산검사 확대, 우한연락사무소 감독 강화

◆ 베이징시(北京市)

- 양회 기간 전염병 재발 방지 강화
- 수업 재개와 관련, 교사와 학생 안전 및 건강 보장

자료 출처 : 인민망 및 중국환경보 기사(2020.5.15.) 의거 KEITI 중국사무소 재구성

1) 공급 사슬(供应链) : 원재료의 조달에서부터 완제품의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재화와 서비스 및 정보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연결망 **국립국어원 발췌(2020.5.18.)**
 2) 샤오강 사회(小康社会) :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뿐만 아닌 경제발전, 민주적 정치, 문화 번영, 조화로운 사회, 아름다운 환경, 윤택한 생활, 풍요로운 삶, 국력신장 등 경제, 정치, 문화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사회 **1979년 일본 오히라 수상 방문 시 덩샤오핑(邓小平) 주석 발언 인용**
 3) 우한연락사무소(武汉联络组) : 코로나 발병 이후 핵산 검사, 주민 통제, 현황 보고 등을 목적으로 비상 발령된 팀을 뜻하며, 5월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당신 뉴스 기사(2020.5.6.) 인용**
 4) 양회(两会) : 중국의 전국정치협상회의(全国政治协商会议)와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를 뜻하는 명칭으로, 한 해 중국 정부의 경제정치 운영 방침이 정해지는 최대의 정치 행사 **중국 바이두 백과 발췌 번역(2020.5.18.)**

회의에서는 ‘전염병 재발 방지의 상시화(常态化)’를 강조했다. 또한 최근 집중 발생지역에서의 교훈을 근거로 하여 각 지역은 ① 본토의 방역 허점에 대한 집중조사, ② 중점 방역 보강, ③ 방역요구 강력실행 등을 통해 전염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회의에서는 당 중앙의 의사결정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밝혔다. 더불어 여름철 날씨 특성에 맞게 통제 요구사항을 보완하고, 전 국민에 대한 과학적 방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타국의 전염병 상황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외유입 바이러스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경지역과 접안 도시의 위생검역, 격리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전염병 예방을 위해 국제협력을 계속해서 심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중 공급측 구조성 개혁(供给侧结构性改革)⁵⁾을 심화해 중국의 초대규모(超大规模) 시장 우위와 잠재력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국내외 순환식 상호 촉진발전(国内国际双循环相互促进的新发展)⁶⁾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는 산업 인프라 재건(再造)과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 전통산업의 우위 선점과 강화를 통해 전략적 신흥산업과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인프라 고도화 및 밸류체인(value chain) 현대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거대국가 체제의 강점을 살린 과학기술 혁신과 기술발전 강화를 강조하였다.

※ 공급측 구조성 개혁에 대한 이해

‘생산이 너무 많아 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뜻한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인해 실제 구매력이 떨어져 상품이 팔리지 않아 중국은 경제 분야에서 큰 타격을 입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모색한 두 가지 방안이 바로 ‘내수시장 확대’와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이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 역시 저가형 제조(Low-end)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탄생한 규제 중의 하나이며, 현재는 정부의 천문학적 투자유치와 정책 지원, 기업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하이엔드(High-end) 제조업체를 늘려 효율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참고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자료 인용

회의에서는 중점 산업 체인과 업계 선두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막힌 곳을 뚫어주고(打通堵点), 끊긴 곳을 연결하여(连接断点) 생산 측면뿐 아니라 영업, 판매 등 모든 체인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각종 백화점·시장 등 생활서비스 업종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산업·시장·경제사회 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산업사슬 안전과 안정을 공동으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내용 출처 : 인민망(2020년 5월 14일), 중국환경보(2020년 5월 15일)

<http://cpc.people.com.cn/n1/2020/0514/c64094-31709431.html>

https://www.cenews.com.cn/news/202005/t20200515_942226.html

5) 공급측 구조성 개혁(供给侧结构性改革) : 시진핑 총서기가 공급측구조개혁,공급측개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널리 유행 노동력, 토지, 자본, 기술혁신 등 생산요소 측면의 효율성 제고를 강조한 개념. 공급측개혁(供给侧改革)으로도 일컬음 중국 바이두 백과 발췌 번역(2020.5.18.)

6) 국내외 순환식 상호촉진 발전(国内国际双循环相互促进的新发展) : 국내에서 특화된 산업에 집중하여 성장과 개발을 거듭하면 자연스럽게 국제시장에 진출해 책임과 도의를 갖게 되고, 따라서 국내 경제 발전에도 이익이 된다는 발전 사상 중국 소호망 기사(2020.5.14.) 발췌 번역

2. '14.5' 기획, 오존 규제 강화가 전망되는 '푸른하늘 보위전'

2019년 중국 오존 농도의 뚜렷한 상승은 PM_{2.5}, 우량일수⁷⁾와 함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생태환경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기환경국(大气环境司) 류빙장(刘炳江) 국장(司长)은 2020년 대기오염 분야에서는 오존 농도 상승과 여름철 VOCs(휘발성유기물)에 대한 종합 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일부 편성이 진행 중인 '14.5' 대기오염방지 특별계획에서는 오존 농도 상승의 두 가지 주요 원인인 VOCs와 질소산화물에 대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전국 337개 지급시(地级市)⁸⁾ 및 이상 도시의 오존 농도는 전년 대비 6.5% 이상 상승했고, 오염일수(AQI 101 이상 날씨의 일수) 중 41.8%가 오존이 주요오염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국의 우량일수 비율은 전년 대비 2.3%포인트 하락하게 되었다.

류(刘) 국장은 “「푸른하늘 보위전[蓝天保卫战]⁹⁾」 이후 전국적으로 공기질은 확실히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단계적 목표이기 때문에 전국 도시의 공기질이 표준에 도달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아울러 류(刘) 국장은 “「푸른하늘 보위전」은 계속 진행될 것이며, 곧 발전된(Up-grade)된 ‘푸른하늘 보위전 행동계획’도 수립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류(刘) 국장은 오염 원인에 대해 오존의 주요 원인인 VOCs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 분석하며, VOCs의 경우 많은 배출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존 농도는 기온이 높고 상대습도가 낮을 때 높아지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따뜻한 날씨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으로 오존 배경농도(背景值)¹⁰⁾는 연평균 1μg씩 상승하고 있고, 유럽·미국·일본 등 북반구 국가들의 오존농도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류(刘) 국장은 VOCs와 오존 통제를 위해서는 오염이 가장 심한 여름인 6~9월을 중심으로 징진지(京津冀)¹¹⁾ 및 주변지역, 창장삼각주(长三角)¹²⁾ 지역, 편웨이평원(汾渭平原)¹³⁾, 쑤완루위(苏皖鲁豫) 접경지역¹⁴⁾의 석유화학, 화학공업, 공업도로, 포장인쇄 및 유류 저장판매 등 산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7) 우량일수(优良日数) : AQI 지수(Air Quality Index. 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오염 정도에 대한 척도가 되는 지표. AQI가 높을수록 더 많은 인구가 건강상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오염정도별 분류. 우수(0~50), 양호(51~100), 경도오염(101~150), 중도오염(151~200), 중중오염(201~300), 심각한 오염(300 이상) **미국 EPA 및 중국 생태환경부 「환경공기품질표준[环境空气质量标准]에서 동일하게 적용**

8) 지급시(地级市) : 중국 행정 구역 중 하나로써 행정 구역의 카테고리는 지역, 자치주, 맹과 동일하며 행정적 지위는 '지역'과 같기 때문에 '지급 도시' 또는 '지급시'라고 칭함. 1983년 11월 5일부터 국가 행정 기구 규칙 통계에 행정구역 용어로 정착되었으며, 2019년 현재 중국에는 293개 지급도시가 있음. 지급 이상 도시는 성(省), 직할시(直辖市), 자치구(自治区) 등이 있음 **「중화인민공화국헌법[中华人民共和国宪法]」(2018.3.11.) 제 30조 발췌**

9) 푸른하늘 보위전(蓝天保卫战) : 2017년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각각 3% 감소, 중점 지역의 PM2.5 농도를 대폭 감소시키는 대기오염 방지 사업 **중화인민공화국 제 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차 회의 리커창 총리 발언(2017.3.5.) 인용**

10) 배경농도(背景值) : 대기나 해양 등의 오염농도를 고려할 때, 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해당하는 농도를 뜻함 **<지구과학 사전(2009)> 발췌(2020.5.20.)**

11) 징진지(京津冀) : 중국의 '수도 경제권'으로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11개 지급시(바오딩, 랑팡, 스자창, 한단, 친황다오, 장자커우, 청더, 창저우, 싱타이, 형수이시)를 포함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징진지 협력발전 계획요강[京津冀协同发展规划纲要]」(2015.4.30.) 발췌**

12) 창장삼각주(长三角) : 상하이시(上海市), 장수성(江苏省) 난징시(南京市), 우시시(无锡市), 창저우시(常州市), 저장성(浙江省) 항저우시(杭州市), 닝보시(宁波市), 자싱시(嘉兴市), 안후이성(安徽省) 허페이시(合肥市), 우후시(芜湖市) 등 지역 **국무원 「창장삼각주도시군발전규획[长江三角洲城市群发展规划]」(2016.5.11.)**

13) 편웨이평원(汾渭平原) : 황허(黄河) 유역의 평원지대로써 산시성(山西省)과 산시성(陕西省) 시안시(西安市), 시엔양시(咸阳市), 웨이난시(渭南市), 윈청시(运城市), 린펀시(临汾市) 등 11개 도시가 포함됨 **중국 바이두 백과 발췌 번역(2020.5.20.)**

14) 쑤완루위(苏皖鲁豫) 접경지역 : 장쑤성(苏), 안후이성(皖), 산둥성(鲁), 허난성(豫) 등 네 개 성(省)의 접경 지역 **중국 바이두 백과 발췌 번역(2020.5.20.)**

<참고자료 2 : 브리핑 주요 강조사항 및 쑤완루위 접경지역>

◆ 과학적인 오염 통제 필요

- 원료와 제품 속 VOCs는 기업의 손실
- 효과적 회수 및 통제를 통해 이익 증가
- 인화성 물질의 효과적인 리스크 방지 필요

생태환경부 류빙장(刘炳江) 대기환경국장
생태환경부 브리핑(2020.5.15)



자료 출처 : 중국환경보 기사(2020.5.18.) 의거 KEITI 중국사무소 재구성

류(刘) 국장은 또한 과학적 오염통제 실시가 시급하며, 원료와 원제품에 함유된 VOCs는 기업 입장에서도 이윤 손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통제하여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생태환경부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여 각 지역에 VOCs 관리를 실시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생태환경부는 도료, 잉크, 접착제, 세정제 등에 가능한 한 VOCs가 적게 함유된 제품을 쓰도록 장려 중이며, 관련 제품의 VOCs 함유량 제한치에 대한 국가표준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또한 오염제거시설을 설치한 기업을 중심으로 VOCs 수집률, 시설 가동률 및 오염제거율 향상을 통해 종합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오염도로 보면 쑤완루위 접경지역은 현재 중국 전역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 중 하나가 되었고, 가을·겨울에는 PM_{2.5}, 여름에는 오존으로 인한 오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의 대기오염은 결국 남북으로 연결된 징진지 및 주변지역과 창장삼각주 지역의 대기질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류(刘) 국장은 “이 지역에는 철강 8천만 톤, 코크스 4천만 톤, 시멘트 1.4억 톤, 석유화학 1.1억 톤의 생산력이 집중되어 있고, 도시 절반의 석탄 소모량은 1천만 톤을 넘는다”며 “단위면적당 석탄 소모 강도는 징진지 및 주변지역 ‘2+26’ 도시(‘2+26’城市)¹⁵⁾와 맞먹는 수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관리에서의 난이도가 가장 높은 편이다”라고 설명했다.

생태환경부는 올해 쑤완루위 접경지역의 22개 도시에 대기오염방지 연동체계 구축, 관리 향상 등을 통해 지역 전체의 공기질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용 출처 : 중국환경보(2020년 5월 18일)

https://www.cenews.com.cn/news/202005/t20200519_942638.html

15) ‘2+26’ 도시(‘2+26’城市) : 징진지 대기오염이 통과하는 도시로 베이징시(北京市), 톈진시(天津市), 허베이성(河北省), 산시성(山西省), 산둥성(山东省), 허난성(河南省) 지역 도시들을 뜻함 생태환경부 「징진지 및 주변지역 2017년 대기오염방지사업방안[京津冀及周边地区2017年大气污染防治工作方案]」(2017.2.17.) 발체

3. 중국 의료폐기물 처리능력 시급히 강화해야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은 중국과 세계 경제, 산업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객관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산업발전에 있어 도전이자,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전국 정협(政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위원이자 중국지에닝 환바오그룹유한공사(中国节能环保集团有限公司, 이하 ‘중국지에닝’) 송신(宋鑫) 대표이사(董事长)는 기자회견장에서 “위생 분야 인프라를 정비하고 의료폐기물 처리능력을 보강하는 등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송(宋) 대표이사는 위험폐기물 중 특히 의료 위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국적인 통일된 계획을 수립하고, 인구밀도와 병원 배치, 의료폐기물 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체계적인 처리시설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의료폐기물 관리를 강화하여 수집, 운송, 처리(무해화 소각 등) 또는 매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고오염·고위험 폐기물에 속하며, 수집, 보관, 운송, 처리 과정이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하다. 또한 이는 바이러스 퇴치의 마지막 관문인 만큼 관리와 처리에서 허점을 보이면 2차 감염, 바이러스 확산 등 수많은 손실과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송(宋) 대표이사는 코로나-19가 발병한 후,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를 주업으로 하는 중앙기업으로서 의료폐기물, 위험폐기물 처리 등 전문적인 이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각 지역에 최고 수준의 오염물 처리 및 전반적인 감독 관리를 강조 했다.

1분기 말 현재 중국의 에너지 절약 관련 기업의 업무 복귀율은 99.6%로 이 중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의 복귀율은 100%, 누적 투자금액은 약 44억 위안(한화 약 7,2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宋) 대표이사는 특히 ‘중국지에닝(中国节能)’ 산하의 중국지에닝생태환경과기유한공사(中节能生态环境科技有限公司)가 원래 반 년 정도 걸려야 했을 우한의의료폐기물 처리센터(武汉医疗废弃物处置中心) 건설을 14일 만에 완수하고 운영 유지를 맡아 우한시(武汉市) 의료폐기물을 최소화했으며, 차세대 의료폐기물 처리사업의 미래를 대폭 앞당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5월 5일까지 ‘중국지에닝’이 처리한 의료폐기물은 누적 약 13,800톤으로 그 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의료폐기물은 약 3,100톤 이상, 고체폐기물은 약 390만 톤 처리했으며, 청정 수돗물 1억 4,000만 톤을 공급했고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 2억 5,000만 톤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송(宋) 대표이사는 “의료 위생 등 분야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밝히며, 현재 국가 다수의 부위원회(部委)에서는 이미 공문을 발송했고, 다음 단계로 지급시(地级市)¹⁶⁾ 이상 도시에 모두 의료폐기물 처리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지에닝’은 국가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인프라와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전염병 발생 후 수요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위험폐기물과 폐수 처리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통해 난국을 돌파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그는 “현재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数字经济)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우리 역시 시안시(西安市)에 친환경 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동 방면에서도 서비스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음 단계로는 전국적인 위험폐기물 관련 빅 데이터 구축, 에너지 절약 및 소모 저감 데이터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6) 지급시(地级市) : 중국 행정 구역 중 하나로서 행정 구역의 카테고리는 지역, 자치주, 맹과 동일하며 행정적 지위는 '지역'과 같기 때문에 '지급 도시' 또는 '지급시'라고 칭함. 1983년 11월 5일부터 국가 행정 기구 계획 통계에 행정구역 용어로 정착되었으며, 2019년 현재 중국에는 293개 지급도시가 있음. 지급 이상 도시는 성(省), 직할시(直辖市), 자치구(自治区) 등이 있음 『중화인민공화국헌법[中华人民共和国宪法]』(2018.3.11.) 제 30조 발췌

국가 중대 전략 실시는 중국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하나의 큰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송 대표이사는 창장(长江, 장강) 보호가 심도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황허(黄河, 황하) 유역 생태계 보전과 고품질 발전(高质量发展)¹⁷⁾이 국가 전략으로 격상되었다는 것은 또 하나의 큰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5월 ‘중국지에닝’이 국가 차원의 창장 경제벨트(长江经济带)¹⁸⁾ 오염관리 플랫폼 기업으로 확정되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중국지에닝’은 창장 인근의 성(省) 및 도시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178개의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고, 후저우시(湖州市), 시엔닝시(咸宁市), 형양시(衡阳市), 비지에시(毕节市) 등 중점 시범도시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지에닝’이 지금까지 동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1,300억 위안(한화 약 22.5조 원)을 넘어섰다.

<참고자료 3 : 중국 창장 경제벨트 위치>



자료 출처 : KEITI 중국사무소 작성(2020.5.25.)

아울러 송(宋) 대표이사는 기존 창장 보호 시범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하는 한편, 2차 시범도시를 적극 선정하여 신사업 진행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허 정비 일정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가속화하며, 수처리 및 쓰레기 처리 등 관련 사업 역시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창장 보호지역은 광범위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며 “사업 분야가 매우 복잡해 수 조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 투자가 부족하고 녹색금융(绿色金融)¹⁹⁾ 상품을 늘리기 위한 저금리 장기대출 지원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 주요 문제이다.

송(宋) 대표이사는 올해 창장 보호를 위한 시중 은행 여신 지원을 통해 자금 투입을 보장하고, 신규 대출 한도액 중 매년 창장 보호를 위한 특별한도를 제공해 충분한 신용을 보증해 줄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공익적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시중 은행들은 해당 기업들에게도 최대한의 금리 혜택을 줘야 하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축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늘릴 것도 건의하기도 했다. 그 외 대출 승인에 있어 창장 보호 관련 대출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의 효율성을 높여 적시에 효율적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용 출처 : 중국환경보(2020년 5월 22일)

https://www.cenews.com.cn/company/202005/t20200522_943382.html

17) 고품질 발전(高质量发展) : 2017년 중국 공산당 제 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처음 제시된 새로운 표현으로, 중국 경제가 고속성장(高速增长) 단계에서 고품질발전 단계로 옮겨감을 명시함 **중국 바이두 백과 발췌 번역(2020.5.25.)**

18) 창장 경제벨트(长江经济带) : 상하이시(上海市)·장쑤성(江苏省)·저장성(浙江省)·안후이성(安徽省)·장시성(江西省)·후베이성(湖北省)·후난성(湖南省)·중칭시(重庆市)·쓰촨성(四川省)·윈난성(云南省)·구이저우성(贵州省) 등 11개 지역을 걸친 지역으로 205만 km² 면적에 달해 중국 전체 면적의 21%를 차지하며 인구 및 경제 규모는 전국 40%에 달함

19) 녹색금융(绿色金融) : 환경, 에너지 등과 관련된 금융 활동을 통합적으로 일컫는 말로, 환경 개선, 금융 산업 발전,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 형태 **중국 바이두 백과 발췌 번역(2020.5.25.)**

4. 코로나-19가 중국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2월 중순 이후,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19에 대한 통제 조치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대부분의 성(省)에서는 6주째 국내 감염 사례에 대한 추가 보고가 없었지만, 외국인 입국자로 인한 감염 리스크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 통제가 언제 완화될 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이러한 통제 속에서 중국은 점차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고 있다. 국민들은 여전히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쓴 채 일상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경제 곡선은 이미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렸고, 이러한 추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빠른 생산과 업무복귀(复产复工)를 추진했다. 4월 마지막 주까지 대부분의 건설업과 공업 분야에서는 정상 가동을 시작했지만, 외식업 및 관광업 등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는 여전히 수요가 크게 모자라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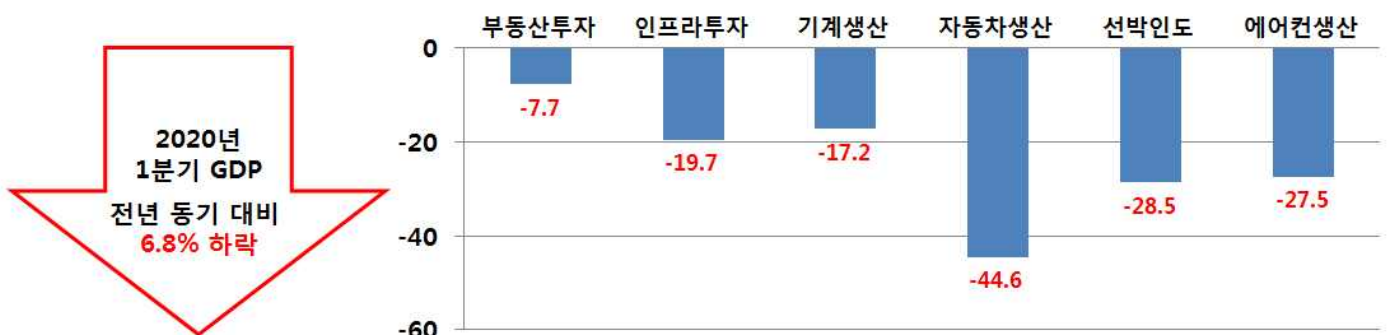
◆ 의외로 타격이 크지 않은 철강 생산

2월에는 전국 교통 및 운송 시스템, 특히 도로와 수로 운송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대부분의 철강업계는 원료 공급이 끊기다시피 한 상황이었다. 특히 도로 교통을 완전히 폐쇄한 일부 성(省)의 경우, 근로자와 화물차량 운전사들이 춘제(春节, 중국 설) 이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해 더욱 심각한 상황을 빚기도 했다. 3월이 되어서야 교통 통제와 폐쇄 조치가 완화되었고, 4월 초부터 원료 공급과 제품 운송이 거의 정상화되었다. 다행히 철강업계는 원료 재고를 적정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2020년 1분기 조강(粗钢)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며 일부의 예상을 뒤집었다.

◆ 철강 수요의 위축

그러나 중국 내 대부분의 철강 수요(用钢) 업계는 팬데믹으로부터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1월 마지막 주부터 거의 모든 건축사업이 중단되거나 정체를 당하는 등 건설업 분야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통과 운송의 마비로 근로자 복귀와 자재 운송 등이 불가능해지면서 건설업은 두 달 가량의 시련을 겪어야 했다. 3월 초 이후 성(省) 간 이동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에 따라 이 국면은 빠르게 개선되었지만, 최근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서 발표한 1분기 경제 운행 수치는 대부분의 철강 수요 업계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음을 보여 준다.

<그래프 1 : 팬데믹으로 인한 중국 내 철강 수요 업계의 손실>



자료 출처 : 중국 국가통계국 1분기 경제 운행 수치 의거 KEITI 중국사무소 재구성

5월 14일 현재 94% 이상의 농민공(农民工)²⁰이 본업에 복귀했다고 중국 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중순 대부분의 건설업과 공업 현장에서는 정상 수준의 가동이 시작되었고, 철강의 수요 역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역시 어디까지나 회복 단계일 뿐, 해외의 수요까지 생각하면 일부 철강기업의 생산력은 아직 팬데믹 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철강업체의 대량 기부

정상적인 철강 생산량에 비해 지속되는 수요 위축으로 인해 강재(钢材) 재고량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중국철강공업협회(中国钢铁工业协会)와 중국 철강거래 플랫폼인 마이스틸닷컴(我的钢铁网)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철강 생산기업과 유통 라인의 강재 재고는 2019년 12월 말 재고량의 160%에 가까운 5,500만 톤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다수의 철강 생산업체들은 용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고를 찾아 동분서주해야만 했다. 동시에 2월 중순 이후 대부분의 철강 생산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해 21일 47개 철강업체의 용광로 약 73기(7,700톤/년)의 가동이 중단되었고, 이어 3월 일평균 조강 생산량은 1월 대비 약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수요 위축으로 인한 강재 생산 감소(2~3월)와 운송 제한 해제로 인한 수요 상승(4월)이 맞물려 4월 중순 강재 재고량은 3월 말에 비해 약 10% 감소했다.

중국 철강업계는 코로나-19 감염 치료 및 의심사례를 접수하는 병원에 대규모 기부를 시작했다. 약 95개 철강기업이 16억 위안(한화 약 2,767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기부하기도 했고, 후베이성(湖北省) 소속 병원에 의료방호장비와 구급차를 대거 기증했다. 덕분에 중국 정부는 기업에서 기증한 현금과 수십만 톤의 강재를 통해 2개의 임시 병원을 빠르게 건축할 수 있었다.

◆ 정부의 경기부양계획

중국 정부는 2월 이후 각 업종의 기업들에게 빠르고 안전한 조업 재개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4월 말까지 공기업 전체의 생산 수준을 만부하(满负荷)²¹ 상태까지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영세 민영기업은 수요 위축과 자금 부족으로 인해 아직도 정상적인 생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 중소기업에 대한 증치세(增值稅)²² 부담 인하, 신에너지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등 파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그 중 가장 직접적인 조치는 근로자 사회보험(社保) 중 기업의 납입금 비율을 낮추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경기를 부양할 가장 중요한 조치인 신 인프라 건설(新基建)²³ 프로젝트를 통해 철강 산업의 수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철강협회(世界钢铁协会, World Steel) 회의를 포함해 2020년 상반기 중국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모든 업계 회의들은 모두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2020년 7월 이후부터는 중국 이외 지역의 상황 역시 호전되어 대부분의 회의가 다시 개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용 출처 : 베이징싱 환보망(2020년 5월 7일)

<http://huanbao.bjx.com.cn/news/20200430/1068559.shtml>

20) 농민공(农民工) : 도시로 이주해 노동자의 일을 하는 농민. 2014년 기준 중국 농민공의 수는 약 2억 7,395만 명 <중국 현대를 읽는 키워드 100>, 중국 바이두 백과 발췌 번역(2020.5.21.)

21) 만부하(满负荷) : 기계가 자기의 성능이나 능력을 완전히 내는 상태 국립국어원 발췌(2020.5.21.)

22) 증치세(增值稅) : 중국의 세제 중 유통세의 한 항목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개념으로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부과. 수출 제품은 원부자재에 대해 납부된 증치세를 정해진 세율에 따라 다시 환급해 주며, 중국의 전체 세금 수입 중 30~40%를 차지하는 세목.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임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2017.10.30.)

23) 신 인프라 건설(新基建) : 5G 기지국 건설, 특고압선, 고속철도 및 도시궤도 교통,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소, 빅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공업 인터넷 등 7대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 이념을 바탕으로 신형 인프라를 건설한다는 부양책으로 2020년 3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제안되었음 중국 바이두 백과 발췌 번역(2020.5.21.)

5. 스마트 친환경 산업 시장 현황 및 전망

2020년은 환경위생(环卫, 环境美化) 업계 전체의 미래 변혁을 위한 촉매제이자 트리거(trigger)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5' 계획의 친환경 정책 붐과 ICT 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중국의 스마트 친환경 업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9년 585억 위안(한화 약 10조 원)를 넘어선 스마트 친환경 산업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할 여지가 매우 크다.

◆ 스마트 친환경이란

스마트 친환경이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환경보호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요 오염원, 물·대기 및 생태환경 등에 대한 즉각적이고 통합된 정보 감지, 전달, 처리를 촉진하는 산업이다. 또한 인터넷 기술과 환경 정보화를 결합한 새로운 환경보호의 개념으로, 환경친화적 기술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이다. 아울러 정보화 수단을 이용한 친환경 정보와 자원의 통합으로 환경 전반에 대한 감시를 '한 장의 그림'으로 실현함으로써 환경보호 수준과 대외 서비스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생태환경 보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2020년 스마트 친환경 산업 현황 및 추세

현재 '스마트 친환경'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기업은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과 환경 모니터링 및 분석기기 제조기업 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모니터링 기기의 대표주자는 쥐광테크(聚光科技), 베이징 SDL(雪迪龙), 시엔허 친환경(先河环保) 등이 있으며,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은 대기업인 타이지(太极), 뉴소프트(东软, Neusoft), 시노소프트(中科软, Sinosoft)를 비롯해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베이징의 THS(北京思路创新), MAPUNI(中科宇图), 장쑤성(江苏省)의 Gezila(江苏神彩) 등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있다.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은 보통 '인터넷+정무서비스' 형식의 성(省) 부급(部级) 및 국가급(国家级) 스마트 친환경 플랫폼 등을, 지급시(地级市)²⁴⁾ 플랫폼의 경우 신규 전문 개발사가 수주해 구축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신삼판(新三板)²⁵⁾ 영역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지역 분포를 보면, 전 세계 친환경 산업(저탄소 산업과 재생가능 에너지 산업 포함) 시장에서 아시아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약 38%에 달하고, 미주와 유럽의 기업이 각각 30%, 28%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광의(广义)의 친환경 산업 규모로 봤을 때 상위 10개국 중 3개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었으며, 이 중 중국이 2위, 인도가 4위, 브라질이 8위를 차지했다. 신흥 시장 국가들은 전 세계 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대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 발전 국가는 미국, 일본 및 유럽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미국은 오늘날 친환경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로, 전 세계 친환경 산업 총 가치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 세계 주요 국가의 친환경 투자 현황>

국가	주요 내용	시기	총 투자 예산
미국	친환경 SOC와 녹색산업 육성, 기금 조성 등	2009~2020년	7,870억 달러(한화 약 968조 원)
일본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후쿠다 비전' 제정	2008~2050년	100조 엔(한화 약 1,141조 원)
프랑스	일자리 창출 중심의 Ecological New Deal(녹색 뉴딜)	2007~2020년	4,000억 유로(한화 약 540조 원)
영국	인프라 구축 중심의 그린 뉴딜 정책, 기후변화법 제정	2009~2020년	100억 파운드(한화 약 15조 원)
한국	기후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 뉴딜(23개 사업)	2020년~	355조 원(추진 중)

자료 출처 : 월간조선, 한겨레, 연합뉴스 등 기사 의거 KEITI 중국사무소 정리

24) 지급시(地级市) : 중국 행정 구역 중 하나로서 행정 구역의 카테고리인 지역, 자치주, 맹과 동일하며 행정적 지위는 '지역'과 같기 때문에 '지급 도시' 또는 '지급시'라고 칭함. 1983년 11월 5일부터 국가 행정 기구 계획 통계에 행정구역 용어로 정착되었으며, 2019년 현재 중국에는 293개 지급도시가 있음. 지급 이상 도시는 성(省), 직할시(直辖市), 자치구(自治区) 등이 있음 「중화인민공화국헌법[中华人民共和国宪法]」(2018.3.11.) 제 30조 발췌

25) 신삼판(新三板) : 전국 중소기업양도계통(NEEQ)라고 불리는 장외 주식 거래소로, 상하이 증시나 선전 증시에 상장하지 못한 중소형 기업들에게 자금 조달을 위해 만들어진 주식 시장. 2018년 2월 기준 총 11,630개의 기업이 등록함 중국 바이두 백과 발췌 번역(2020.5.21.)

중국은 스마트 친환경 인프라 건설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미 당 18대²⁶⁾ 보고에서 “생태문명 건설을 목표로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사회 건설의 전 과정을 융합하여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영원한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한다”라는 ‘아름다운 중국(美丽中国)’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보고에서는 샤오강 사회(小康社会)²⁷⁾ 건설의 다섯 가지 목표 중 하나로 ‘자원절약형, 환경우호형 사회 건설’을 수립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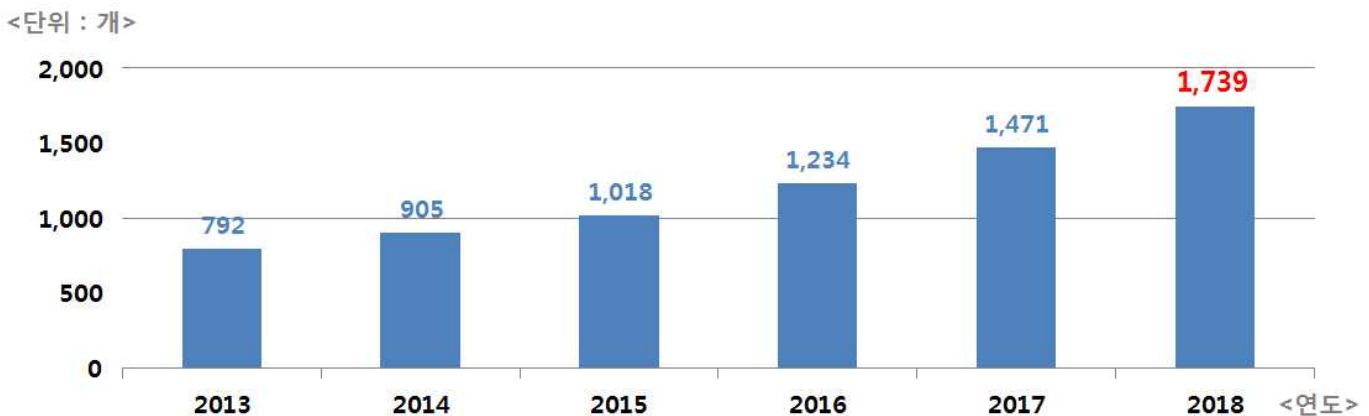
향후 5년 간 스마트 친환경 산업에서 잠재적 시장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만일 미래 중국의 34개 성급(省级) 행정구역과 334개 지급(地级) 행정구역, 2,800개 구(区)와 현(县)에서 스마트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건설 후 운영관리와 투자 분야까지 합친다면 중국의 투자 규모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는 환경오염 문제에 가장 신경 써 왔고, 많은 인력과 자금을 들여 대기오염을 관리하며 환경보호 산업이 한때 인기 산업으로 떠올랐다. 또한 2020년 중국 환경보호 산업의 총 생산액은 약 10조 위안(한화 약 173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6~2018년 중국 스마트 친환경 산업 운영지표

① 기업 분포 및 수

현재 스마트 친환경 주요 시장 참여자는 주로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환경 모니터링 및 분석기기 제조, 사물인터넷, 친환경 IT 서비스 솔루션,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은 비교적 폭넓은 방향으로 진출 중에 있다. 또, 환경 모니터링 및 분석기기 제조 기업은 친환경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기술 수준이 높고, 사물인터넷 기업은 GIS²⁸⁾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등 각각의 능력과 장점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China IRN(中研普华)²⁹⁾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스마트 친환경 시장에 참여 중인 기업은 1,739개로 2017년 대비 18.34% 증가했다.

<그래프 2 : 2013~2018년 중국 내 스마트 친환경 기업 수>



자료 출처 : China IRN 조사자료 의거 KEITI 중국사무소 재구성(2020.5.21.)

26) 당18대(党的十八大) : ‘12년 11월 8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의 약칭 **중국 바이두 백과 발췌 번역(2020.5.21.)**

27) 샤오강 사회(小康社会) :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뿐만 아닌 경제발전, 민주적 정치, 문화 번영, 조화로운 사회, 아름다운 환경, 윤택한 생활, 풍요로운 삶, 국력신장 등 경제, 정치, 문화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사회 **1979년 일본 오히라 수상 방문 시 덩샤오핑(邓小平) 주석 발언 인용**

28)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일반 지도와 같은 지형 정보와 함께 지하 시설물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컴퓨터로 작성해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한 복합적인 시스템 **국립국어원 발췌(2020.5.21.)**

29) China IRN(中研普华) : 1998년 설립되었으며 중국의 기업 고위 임원, 시장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인 산업연구 전문기관 **中研普华 홈페이지 발췌 번역(2020.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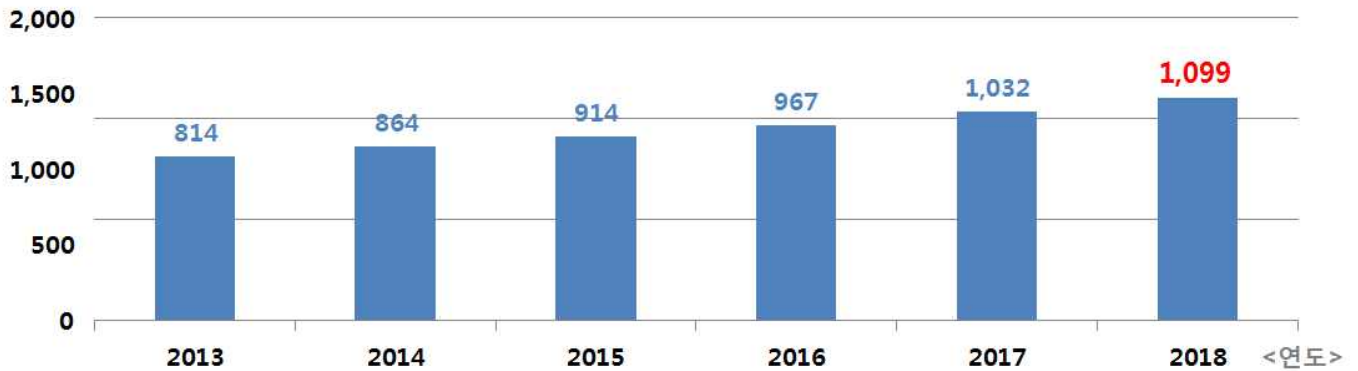
② 스마트 친환경 산업 종사자 수

정책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중국은 현재 ‘디지털 친환경’에서 ‘스마트 친환경’으로 도약 중에 있다. 환경 데이터에 대한 감지와 사물인터넷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환경 모니터링 산업이 향후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을 것이다. 2018년 스마트 친환경 산업 관련 종사자는 이미 1만 명을 넘어섰다.

③ 스마트 친환경 산업 자산 규모

<그래프 3 : 2013~2018년 스마트 친환경 산업 자산 규모>

<단위 : 억 위안>



자료 출처 : China IRN 조사자료 의거 KEITI 중국사무소 재구성(2020.5.21.)

④ 스마트 친환경 산업 시장 규모

<그래프 4 : 2010~2018년 스마트 친환경 시장 규모>

<단위 : 억 위안>



자료 출처 : China IRN 조사자료 의거 KEITI 중국사무소 재구성(2020.5.21.)

내용 출처 : 베이징시 환보망(2020년 5월 13일)
<http://huanbao.bjx.com.cn/news/20200513/1071731.shtml>

6. 중국 최대의 연중 정치행사, 양회(两会)

◆ 양회란?

양회(两会)란 중국에서 매년 3월에 거행되는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약칭 '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약칭 '정협')를 통칭하는 말이다. 양회를 통해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운영 방침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알려져 있다.

<참고자료 4 : 전인대 및 정협 심볼>



자료 출처 : 중국 전인대 및 정협 홈페이지(2020.5.26.)

전인대는 헌법에 규정된 최고 국가 권력 기관이며, 각 성, 직할시, 자치구, 특별행정구, 인민해방군 등에서 선출된 대표들과 소수민족 대표들로 구성된다. 총 2,98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5년이다. 전인대는 헌법 수정·이행 및 감독, 기본법 제정 및 개정, 국가 주석·부주석·국무원 총리 등 선출 및 파면, 국가 예산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심의 및 비준, 특별행정구의 설립과 운영 결정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 회의를 통해 중국 정치 및 경제에 대한 운영 방침이 결정된다.

정협은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로, 전국위원회(全国委员会)와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로 구성된다. 전국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을 비롯해 각 당파와 소수민족, 인민단체, 홍콩과 마카오 교포 등 각계각층 대표로 구성되며, 총 2,152명(2020년 기준)으로 임기는 전인대와 같이 5년이다. 정협위원은 상무위원회 주석과 구성원을 선출하고 국정 방침에 대한 토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전인대보다 영향력은 높지 않다.

1995년부터 양회는 3월 개최하는 것이 관례로 굳어져 정협은 매년 3월 3일, 전인대는 3월 5일부터 열리며 개최 기간은 10~12일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40년만에 양회가 연기되어 5월 21일에 개최되었고,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삼엄한 경비 속에서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표 2 : 전인대와 정협 주요 차이점>

구분	전인대	정협
출범 시기	▶ 1954년 9월	▶ 1949년 9월
주요 임무	▶ 헌법개정 및 헌법 집행 감독 ▶ 기본법을 제·개정 ▶ 국가주석·국가부주석·국무원총리 선출 및 파면 ▶ 국가예산과 예산집행 상황 심의·비준	▶ 정책 자문 ▶ 국정방침에 관한 토의에 참여, 제안 및 비판
수장	▶ 리잔수(栗战书) 위원장	▶ 왕양(汪洋) 주석(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서열 4위)
위원 선출방법	▶ 공산당원 또는 지방위원의 간접선거 또는 인민해방군 내 별도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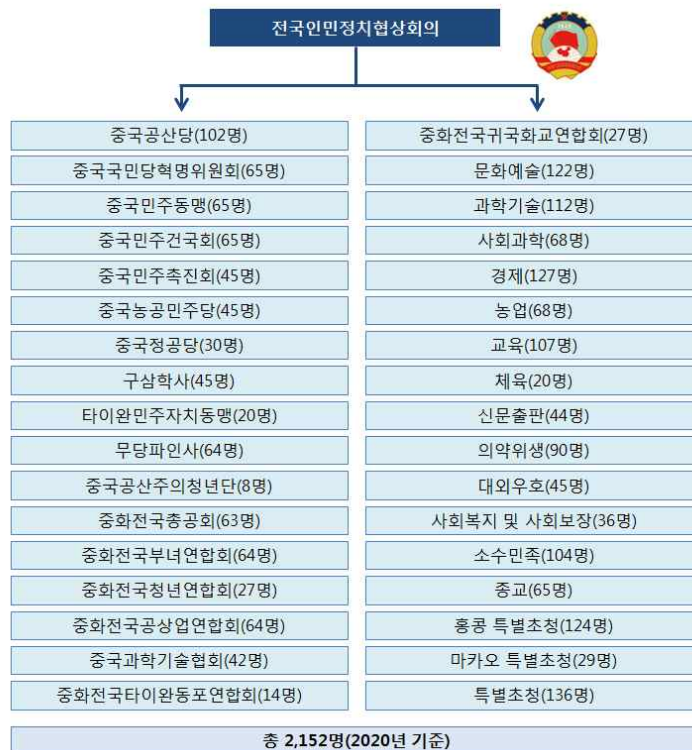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중국 전인대 및 정협 홈페이지(2020.5.26.)

<참고자료 5 : 전국인민대표대회 구성>



자료 출처 : 중국 전인대 홈페이지 자료 의거 KEITI 중국사무소 재구성(2020.5.26.)

<참고자료 6 :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구성>



자료 출처 : 중국 정협 홈페이지 자료 의거 KEITI 중국사무소 재구성(2020.5.26.)

자료 출처 : 중국 전인대(<http://www.npc.gov.cn/>) 및 중국 정협(<http://www.cppcc.gov.cn/>) 홈페이지(2020년 5월 26일)

7. 지난 5년간 양회, 환경보호 관련 의제 요약

2020년 5월 22일, 제 13기 전국인민대회(全国人大) 3차 회의가 베이징시(北京市)에서 개최되었고, 관례에 따라 첫날에는 정부 업무보고가 실시된다. 최근 몇 년 동안 환경보호 문제는 전 국가와 국민의 관심이 되어 왔으며, 매년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해당 연도의 친환경 사업 목표를 제시한다.

2020년은 중국이 빈곤에서 완전히 탈출(脱贫)하면서 동시에 샤오강 사회(小康社会)³⁰를 건설하는 매우 뜻 깊은 해이다. 이러한 전면적인 샤오강 사회 건설에는 환경보호가 관건이다. KEITI 중국사무소는 환경보호와 관련해 올해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어떤 새로운 내용이 발표될지, 환경산업은 지난 몇 년 간 어떠한 내용을 주제로 진보해 왔는지 조사했다.

◆ 2015년 : 에너지 절약, 친환경 산업을 신형 지주산업으로 육성

중국은 2015년부터 에너지 절약과 ‘환경관리 공견전(环境治理攻坚战, 환경오염과의 전쟁 선포)’을 벌이기 시작했다. 환경 오염은 민생의 병이자 아픔이며, 강력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당해 이산화탄소 배출 농도는 3.1% 이상,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암모니아 배출은 2% 이상, 이산화황 배출은 3%, 질소산화물 배출은 5% 이상 줄일 것을 명시했다. 또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大气污染防治行动计划)」의 심층 실시, 구역별 협력 관리 시행, 석탄의 고효율 이용 강화 등을 중심으로 석탄발전소의 초저배출을 촉진하고 중점 구역의 석탄 소비 제로를 장려했다. 신에너지 자동차를 보급하고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시작해, 유류품 기준과 품질의 향상시키고 중점 구역 및 중점 도시에 국V 표준의 자동차용 경유를 공급하기도 했으며 2005년 전 등록된 영업용 자동차는 모두 퇴출시켰다. 또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배출권 거래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또, 「수오염방지 행동계획(水污染防治行动计划)」을 실시하여 강·하천·호수의 오염 관리를 전면 강화하고, 수원지부터 가정의 수도꼭지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토양오염 방지 역시 강화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제3차 처리를 추진하기도 했다. 동시에 환경보호세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환경 관련 집법 역시 엄격히 실시하여 보상과 처벌을 적절히 분류했다.

◆ 2016년 : 에너지 절약 친환경 산업을 중국 발전의 큰 버팀목으로 육성

중국은 환경관리를 더욱 강화하며 녹색 발전(绿色发展)³¹을 산업발전의 버팀목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위해 오염방지와 환경보호, 국민건강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집중하여 경제 발전과 환경 개선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당해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암모니아 배출은 각각 2% 이상,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각각 3%씩 줄여 중점 지역 초미세먼지(PM_{2.5}) 농도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것을 명시했다.

또한 중국은 석탄과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데 주력했다. 석탄의 청결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산탄(散煤)³² 사용을 줄이고 전기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석탄발전소의 초저배출 및 에너지 절약 개조를 전면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강제 기준을 수립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탄보일러는 모두 퇴출시켰다. 천연가스 공급을 늘리고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 에너지 등 발전부양책을 보완하고 청정에너지 공급 비중을 향상시키기도 했다.

30) 샤오강 사회(小康社会) :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뿐만 아닌 경제발전, 민주적 정치, 문화 번영, 조화로운 사회, 아름다운 환경, 윤택한 생활, 풍요로운 삶, 국력신장 등 경제, 정치, 문화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사회 **1979년 일본 오히라 수상 방문 시 덩샤오핑(邓小平) 주석 발언 인용**

31) 녹색 발전(绿色发展) : 효율, 조화, 지속을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방식. 에너지절약, 배출감소, 오염물질 관리 등 환경보호 분야에 과학기술 혁신을 접목하는 의미를 갖기도 함. 녹색발전 이념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가치로 삼고, 저탄소 순환이용을 주요 원칙으로 함 **중국 바이두 백과 발췌 번역(2020.5.25.)**

32) 산탄(散煤) : 가정 난방, 취사용으로 쓰이며, 공업(화력발전, 화학공업, 건축자재 등) 용도로 사용되는 석탄과 비교했을 때 품질이 나쁜 석탄 **중국 바이두 백과 발췌 번역(2020.5.25.)**

짚(秸秆, 농작물 지푸라기 등)을 자원화하고 재사용하도록 장려하여 직접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했다. 또한 국V 연비 표준을 수립하고 황색표지차량(黄标车)³³⁾ 및 노후 차량 380만 대를 퇴출시켰다. 중점 구역에서 대기오염 협력 통제를 실시하고, 마을 우수처리시설 건설 및 개조를 전면 추진하여 농업 면원오염(面源污染)³⁴⁾과 유역수 환경의 종합 관리를 강화하였다. 산업 오염원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오염배출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한 환경보호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엄격한 규제’로 알려진 「환경보호법[环境保护法]」을 개정했다.

이 때부터 중국은 에너지 절약 친환경 산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선진 기술 장비의 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오염 제3자 관리를 광범위하게 전개했다. 또한 건축 에너지 절약 개조를 강화하고 전통 제조업의 오염배출 저감을 위한 개조를 가속화했다. 전국의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을 마련하고再生资源 재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산업을 국가 발전의 지주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 2017년 : 친환경 산업 전성시대 도래

친환경 산업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중국은 생태환경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생태환경, 특히 공기의 질적 개선을 가속화하는 것은 국민의 간절한 희망이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중국은 「푸른하늘 보위전[蓝天保卫战]³⁵⁾」을 실시했고, 당해에는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 배출을 각각 3%씩 줄여 중점 지역의 초미세먼지(PM_{2.5}) 농도를 뚜렷히 감소시킬 것을 요구했다.

푸른하늘 보위전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첫째로 석탄 오염 문제의 해결이다. 산탄에 대한 종합 관리를 전면 실시하여 북방 지역의 겨울철 청정 난방을 추진하여 석탄을 전기로 대체하고 그 중 300만 가구 이상은 가스로 대체하면서 지급 이상 도시 중심에 건설된 석탄보일러를 모두 퇴출시켰다. 또한 석탄발전소 초저배출과 에너지 절약 개조를 확대하면서 동부지역은 2년 안에, 서부지역은 2020년 전까지 완성하도록 요구했다.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발전(发电)된 청정에너지를 송전탑으로 우선 보급하여 청정에너지의 낭비를 완화한다.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며, 짚의 종합 이용을 가속화했다.

두 번째는 오염원 관리의 적극적 추진이다. 중점 산업의 오염관리 특별 행동을 전개해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의 품질을 확보한다. 또한 오염배출 기업에게는 배출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등 강력한 규제를 실시했다.

세 번째는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 강화이다. 황색 표지 차량을 모두 퇴출시키고 노후 자동차의 퇴출을 가속화하며, 오염배출이 높은 자동차에 대한 전문적인 정비와 청정에너지 자동차의 사용을 장려한다. 동시에 연료용 유류 품질을 향상시키고, 중점 구역에서는 국VI 표준의 유류 보급을 가속화한다.

네 번째는 중오염 기상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다. 대기오염의 원인 해석과 스모그 형성에 대한 메커니즘 연구를 강화하여 과학적이고 정확한 중오염 대응 방안을 제고한다. 중점 구역 협력 통제범위를 확대하고 경보 및 응급조치 방안을 보완한다.

33) 황색 표지 차량(黄标车) :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고 농도가 높아 배출 안정성이 떨어지는 국Ⅰ~ 국Ⅲ 사이의 배출 기준 디젤 차량 **중국 바이두 백과 발췌 번역(2020.5.25.)**
 34) 면원오염(面源污染) : 특정 오염원 이외의 것으로, 면으로 분포하고 제어하기가 곤란한 오염원의 총칭. 비점오염원이라고도 함 **중국 바이두 백과 발췌 번역(2020.5.25.)**
 35) 푸른하늘 보위전(蓝天保卫战) : 2017년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각각 3% 감소, 중점 지역의 PM_{2.5} 농도를 대폭 감소시키는 대기오염 방지 사업 **중화인민공화국 제 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차 회의 리커창 총리 발언(2017.3.5.) 인용**

다섯 번째는 엄격한 환경법 집행과 감독 조사 및 문책이다. 기업의 오염물질 위법 배출은 법에 따라 처벌하고, 대기질 악화 또는 부실 대응 등 정부의 실책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암모니아의 배출량은 각각 2%씩 감소시킨다. 중점 유역과 구역, 해역의 수오염 및 농업 면원 오염 방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토양오염에 관한 상세 조사를 실시하고 도시와 농촌의 환경 통합정비를 강화하며,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추진하는 등 녹색 생활방식을 장려한다. 에너지 절약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고, 녹색 재생산과 자원 재활용 산업을 발전시켜 환경 개선과 경제발전을 이루도록 한다. 생태보호 레드라인(生态保护红线)³⁶을 설정하고 이를 엄수한다.

◆ 2018년 : 푸른 하늘, 비옥한 토양, 맑은 물을 지닌 아름다운 중국(美丽中国) 건설

오염방지를 더욱 강화하여 큰 성과를 얻는다. ‘푸른하늘 보위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해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각각 3%씩 감소시키고, 중점 지역 초미세먼지(PM_{2.5}) 농도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시킨다. 철강 산업 등 중점 산업의 초저배출 개조를 추진한다. 오염배출 표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업은 이를 제한 시간 안에 달성하도록 한다. 청정에너지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디젤 화물차 및 표준배출에 부합하지 않은 선박에 대한 특별 정비를 실시하며, 노후 차량을 계속해서 퇴출시킨다. 수오염 및 토양오염방지를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암모니아 질소 배출량을 각각 2% 이상 감소시킨다. 중점 유역 및 해역에 대한 종합 관리를 추진하고 흑취수체(黑臭水体)³⁷에 대한 전면 정비를 실시한다.

오수처리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비용 정책을 보완한다. 고체폐기물 및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강화하고, 폐기물의 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 생태계 보호 및 복구를 강화하고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전면 구축하여 1억 묘(亩)³⁸ 이상의 산림을 조성하고 농경지 휴경 시범 면적을 3,000만 묘로 확장하며, 지하수 및 습지 복구 사업을 실시한다. 또, 환경법의 엄격한 집행과 강도 높은 문책을 통해 아름다운 중국(美丽中国) 건설에 일조한다.

◆ 2019년 : 전문 친환경 중견기업 육성

중국은 오염방지와 생태 건설을 강화하여 작년부터 녹색 발전의 실질적인 추진을 시작했다. 녹색 발전은 현대화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이기도 하며, 오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 발전과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오염방지 행동을 추진해야 한다. 2019년 역시 ‘푸른하늘 보위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각각 3%씩 감소시키고, 중점 지역 초미세먼지(PM_{2.5}) 농도를 지속적으로 줄인다.

징진지 및 주변지역, 창장 삼각주, 편웨이 평원 지역의 대기오염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업, 석탄, 자동차 등 3대 오염원의 배출을 감소시킨다. 또한 북방 지역에 대한 청정 난방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한다. 수오염·토양오염 방지 및 관리를 강화하고, 당해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암모니아 배출량은 각각 2% 이상씩 감소시킨다. 흑취수체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농업 면원오염을 예방하며, 중점 유역 및 근안 해역의 종합 정비를 추진한다. 고체폐기물 및 도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을 강화하고, 감량화(减量化), 자원화(资源化), 무해화(无害化)를 촉진하며, 오염방지와 관련한 과학 기술 및 연구를 강화해 산업의 발전을 이어간다.

36) 생태보호 레드라인(生态保护红线) : 생태공간 범위 내 강제적으로 엄격히 보호해야 하는 구역으로 국가 생태 안전의 최저선 및 안전선 **생태환경부 「국가생태환경보호 레드라인-생태기능선 획정기술지침(시행)[国家生态保护红线——生态功能基线划定技术指南(试行)]」(2014년) 발제**

37) 흑취수체(黑臭水体) : 유동성이 떨어지거나 폐쇄된 수체, 이른바 ‘죽은 물’을 뜻함. 주요 원인은 수체 자정능력 저하, 유기오염물의 유입, 미생물의 호산소분해 등으로 인해 수체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며 산소 결핍 수체에서 유기오염물이 혐기성으로 분해되어 유형별 흑취류 물질을 발생시켜 색이 검고 악취를 내는 수체를 발생시킴 **주건부 「도시흑취수체관리사업가이드[城市黑臭水体整治工作指南]」(2015.9.15) 발제**

38) 묘(亩) : 중국 토지 면적의 단위 1묘=666.67㎡(우리나라의 200평에 해당) **중국 바이두 백과 발제 번역(2020.5.25.)**

기업은 혁신적인 환경 관리 방식을 개발하고 법에 따라 감독받는 등 오염방지의 주체로서 법에 따라 친환경적 책임을 이행한다. 또한 정부는 친환경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원천으로부터의 오염 통제를 위주로, 화력 발전, 철강 등 산업의 초저배출 개조, 중오염 산업의 표준 도달 개조를 가속화한다.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하고, 청정 석탄의 이용을 추진한다. 또한 천연가스 생산 및 공급과 판매 체계를 완비한다. 재생가능에너지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풍력, 태양광, 수력발전 에너지 등을 송전탑으로 보급하는 등 경제적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다.

대도시의 오수관망과 처리시설 건설을 강화한다. 자원 절약 및 집약, 재활용을 촉진하고 건축 및 택배 포장 등에 재생자원 사용을 장려한다. 환경경제정책을 보완하고 오염배출권 거래 제도를 개혁한다. 또한 녹색금융(绿色金融)³⁹⁾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친환경 전문 기업을 육성하여 녹색 발전 능력을 제고한다.

생태계 보호와 복구를 강화한다. 산·하천·삼림·밭·호수·초원(山水林田湖草, 산수림전호초)에 대한 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국토 녹화를 원활히 하고, 황막화(荒漠化, 사막화, desertification), 석막화(石漠化, 석질황막화, Stony Desertification) 및 수도 유출 관리를 강화한다. 생물다양성 보호를 강화하고 국립공원의 체제 개혁을 심화하며, 생태보상체제를 보완한다.

◆ 올해 양회에서 예상되는 환경산업 관련 의제

5월 22일 생태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양회에서는 푸른하늘 보위전의 종료,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 무폐도시(无废城市)⁴⁰⁾ 건설, 생태자원 전환 및 토양오염복원 등이 주요 의제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미 개최된 지방 양회에서는 고체폐기물의 매립 또는 소각, 폐차 분야의 자원 재생, 환경미화 등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회의가 진행되었고, 최근 2년 동안 중앙 양회에서는 고체폐기물 처리와 토양 복구에 관심이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곧 '13.5' 계획이 끝나는 시기이다. 올해 양회에서는 상술한 의제 외에도 '14.5' 계획 내 환경산업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해외 환경기업에게는 거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폐기물 처리 혹은 토양복구, 복원 등에 대한 시장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비해 우리기업은 정보에 대한 빠른 대응과 준비, 수요에 대비한 능력 강화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내용 출처 : 인민망, 중국환경보호온라인, 신화망 등 자료(2015~2020년) 의거 KEITI 중국사무소 재구성(2020년 5월 25일)

39) 녹색금융(绿色金融) : 환경, 에너지 등과 관련된 금융 활동을 통합적으로 일컫는 말로, 환경 개선, 금융 산업 발전,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 형태 **중국 바이두 백과 발췌 번역(2020.5.25.)**

40) 무폐도시(无废城市) : 고체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 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폐기물의 매립을 최소화하는 도시로 2019년 1월 광둥성 선전시(深圳市), 내이멍구(内蒙古) 바오투우시(包头市), 안후이성(安徽省) 퉁링시(铜陵市), 산둥성 웨이하이시(威海市), 충칭(重庆市)시, 저장성 샤오싱시(绍兴市), 하이난성 산야시(三亚市), 허난성 쉬창시(许昌市), 장수성 쉬저우시(徐州市), 랴오닝성 판진시(盘锦市), 칭하이성 시닝시(西宁市) 등 11개 도시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함 **국무원 「무폐도시건설시범사업방안」[「无废城市」建设试点工作方案](2018.12.29.) 발췌**

8. 【기고문】 K-Eco도 글로벌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KEITI 중국사무소 김종균 연구원)

최근 미국 SNS와 뉴스에서는 KBO(한국 프로야구)가 인기 절정이다. 코로나-19라는 펜데믹 영향으로 전 세계 모든 프로스포츠가 중단된 상황에서 KBO는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개막한 프로스포츠이며, 그간 스포츠 중계에 목말라 있던 미국에서는 급기야 한국 프로야구 중계권을 구입해 자국에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있다. 야구에 이어 한국 프로 축구 K-리그 역시 영국, 독일을 비롯한 해외 36개 국가로 중계권이 수출되며 티비, 트위터 등을 통해 360만 명의 글로벌 축구팬들이 개막전을 관람하기도 했다.

◆ 우연한 기회에 봉인이 풀린 K-쇼크(Shock)

2012년 가수 싸이는 ‘강남스타일’을 발매하며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현재 BTS, 블랙핑크 등으로 이어지는 K-pop의 시초가 된 바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국방부는 터키, 폴란드, 핀란드 등 국가로 K-국방의 대표 무기인 K-9 자주포를 20년째 수출하고 있으며, 2019년 개봉해 칸(황금종려상), 골든글러브(최우수 외국어영화상) 등 세계 영화판을 들썩이게 했던 영화 ‘기생충(봉준호 감독)’은 올해 초 미국에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각본상·국제장편영화상·감독상·작품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의 선제대응 및 이를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국민들의 높은 의식은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고, 더불어 우수한 성능의 한국산(産) 진단키트는 세계 각국에서 수출 문의를 받고 있다. 공급 부족을 염려한 한국은 70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들을 우선으로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의리’와 최근 수출되는 군함 등에는 넉넉한 방역 물자까지 넣어 보내주는 ‘정’을 보여 주며 글로벌 펜데믹 퇴치에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낯설다.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되었다”라는 말처럼, 평소처럼 지냈을 뿐인데 갑자기 해외에서 추켜세운다. 또, 한국은 선진국이긴 하지만 휴전으로 인한 분단 상태인 세계 유일의 국가이고, 언제 어디서 안보 위협이 생길지 모르는 국가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는 더욱 낯설 뿐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의 우수한 기술, 인력, 문화 등이 입소문을 타고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를 맛본 세계의 국가들은 한국의 ‘단골손님’이 되어 이제는 불고기, 비빔밥 뿐 아닌 청국장, 순대까지 찾는 모양새가 되었다. 이를 두고 향간에서는 “지나친 국뽕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갑작스럽지만 우선 이를 받아들이고 이런 현상을 향후 국가 발전의 밑거름으로 써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룬다.

※ 국뽕? 주모? - 사회현상이 만드는 신조어

‘국가’와 ‘히로뽕(필로폰, philopon)’의 합성어인 ‘국뽕’, 이는 원래 국수주의·민족주의가 심하며 타민족에 배타적이고 자국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행위나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였지만, 요즘은 긍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막걸리를 마시듯 국뽕 한 사발을 마신다는 이미지 때문에 ‘주모’라는 단어가 동시에 유행을 타고 있다. ‘라떼는 말이야(나 때에는 말이야)’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 흔히 ‘꼰대’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복세편살’은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를 줄인 말로, 최근 젊은 층이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담고 있다. 이는 세상은 복잡하더라도 마음만은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의미에서 생긴 말이 아닐까. ‘일코노미’는 1인 가구 경제를 뜻하며 혼밥(혼자 밥 먹기), 혼술(혼자 술 마시기) 등 1인 문화를 대표한다. 또 이들은 자기애가 강해 대기오염이 없는 지역을 찾아 이주하는 ‘에어노마드(Air+Nomad)’ 족(族)이기도 하지만, 무리에서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인싸(아웃사이더의 반대)’이기도 하다.

오래 전부터 신조어, 유행어는 그 시대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왔다. ‘참살이’, ‘힐링’ 등 자기 만족과 관련한 신조어가 유행했던 시절도, ‘헬조선’이라는 험악한 신조어가 유행했던 시절도 있었다. 최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등과 함께 ‘필환경(반드시 필요한 환경)’이란 신조어가 등장한 것은 분명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 역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 물 들 때 노 저어야

최근 국내 프로야구팀인 'NC 다이노스'의 경우를 보자. 한 달 전만 해도 한국 프로야구가 미국에서 중계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막상 이것이 현실이 되면서 NC 다이노스는 연고 야구팀이 없던 노스캐롤라이나(NC, North Carolina) 주(州)와 적극적인 교류와 협업을 시도했고, 큰 투자도 없이 약 1천만 명에 달하는 지역 야구팬을 확보했다. 물론 두 집단의 우연한 공통점(블루 계열의 지역 컬러와 공룡 마스코트. 노스캐롤라이나는 공룡 화석이 많기로 유명하다)이 큰 공헌을 하긴 했지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마케팅을 진행한 팀 프론트의 현명한 전략 성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을 바로 성공한 마케팅(Marketing)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과거의 전통적이고 진지한 마케팅보다 오히려 친근함, 신선함으로 무장하고 가끔은 '틀을 깨고 선을 넘는' 마케팅 방식이 이목을 끌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환경산업도 이렇게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성장할 기회가 올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모든 산업은 세일즈(sales)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급이 생긴다. 수요 측에서 생각하는 최고의 조건은 흔히 가성비라고 불리는 '높은 품질'과 '낮은 가격'이며, 공급 측에서 생각하는 최고의 조건은 '다양한 수요처'와 '꾸준한 주문'이다. 환경보호, 공해방지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환경산업은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를 타고 진출하기에 매우 용이하다. 또한 기업 기술 혁신과 우수한 품질도 중요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빠른 상황 판단을 통해 무엇보다 수요측이 간절하게 원하도록 만드는 마케팅 타이밍도 중요하다.

◆ 빠른 상황 파악과 정확한 진단이 필요

물론 여기에는 해결해야 할 난점도 많다.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은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한 기술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고, 개도국 또는 최빈개도국의 환경규제 도입 역시 급증하고 있어 신시장 개척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과 정부는 제품 수출에 앞서 각국의 환경관련 제도 및 규제 등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새롭게 생겨나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7 : 환경규제 대응 부재로 인한 수출기업 피해 사례>

- 선박엔진 냉각수로 이용되는 해수 살균장치 제조수출업체 (주)케이씨는 자사 수출제품인 해양생물방지기(Anti-fouling system)가 EU 살생물제품 규제(Biocidal Product Regulation, BPR) 제재 대상임을 영국 주재 경쟁사 고발을 통해 사후적으로 인지
- 규제 미준수 제품을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럽 영해 내 운항이 금지되므로, 해당사 핵심 수출제품의 BPR 미등록으로 이미 납품한 장비의 가동 중단 사례가 속출하고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2016년 1월)
- 규제이행 여부가 회사의 흥망 사항으로 인식, 긴급 대응에 착수해 EU 규제당국 자문 및 국내 정부 지원프로그램 및 전문컨설팅을 통해 수출 장벽 극복(2016년 5월 BPR 활성물질 등록 완료)

자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환경규제 대응전략 및 이행방안 마련(2016)」 발췌

◆ 향상된 국가 이미지에 편승해 고급화 전략 노선 택해야

샤넬 핸드백은 여자들의 머스트 해브(Must Have) 아이템 중 하나이다. 이 가방이 과연 개당 몇 백만 원의 가치가 있을까? 원가만으로 따지자면 아마 이런 가격으로 책정하기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이 가방이 그래도 팔리는 이유는 브랜드 파워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누구나 들으면 알고, 갖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누구나 인정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과거 현대자동차는 미국 땅에서 ‘돈 없는 흑인이나 타는 차’라는 별명을 얻으며 기업 비하와 인종 차별을 동시에 당하던 브랜드였다. 물론 이후 부단한 노력 끝에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었지만, 한국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브랜드가 향상하면서 얻은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그만큼 소비자 인식은 글로벌 산업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를 적절히 이용하고 편승해야 한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손실이 있었지만, 세계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또한 환경부가 뒤에서 묵묵히 임무를 완수한 덕분에 의료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 또는 환경오염 등 문제를 원천봉쇄했다는 점에서 세계는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8 : 글로벌 진출에 성공한 한국 문화와 상품>



자료 출처 : ESPN, BTS 및 싸이 뮤직비디오, 국방부, 연합뉴스 등

◆ K-Eco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과제

이러한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로 연결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 한국에는 매연저감장치 및 촉매·유해가스 및 VOCs 제거·전기집진시스템 등 대기 분야와, 정수장치·미생물을 이용한 하수처리·첨단 멤브레인 등 수질 분야, 건축폐기물 소각·슬러지처리·미생물 등을 이용한 퇴비화 등 에너지 및 자원순환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수도 없이 존재한다.

국내 환경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명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은 두루뭉술하게 ‘산업 지원’이란 말로 포장되어 있고, 정확히 ‘어떠한’ 기업에 대한 지원인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업은 이러한 정부의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도 전에 의문점이 먼저 생긴다. 또한 진출에 앞서 국내 중소 환경기업의 육성이 중요하나 정작 국내기업은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해외진출보다 내수에 치중하는 경영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¹⁾ 이와 같은 내수 지향적 경영구조는 국내기업 간 과당경쟁만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외로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국가가 열어줘야 한다. 또, 국내의 환경 분야 중소기업은 자금 뿐 아니라 시장정보, 규제 등에 취약하고 해외에서의 수주 가능성도 떨어지며, 이에 대한 관리 능력의 검증도 부족하다. 따라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과의 동반 진출 또는 해외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수주 가능성 및 성과를 제고시키는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환경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환경규제 또는 지원정책 등에 대한 완벽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부족한 중소기업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들의 환경산업 지원의 특징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각종 지원책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R&D 중심의 산업 지원정책에 반해 환경산업만큼은 정보수집 단계에서부터 프로젝트화, 재원확보 및 수주역량 강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해외를 열광시킬 수 있는 우리만의 ‘그것’이 필요

상술했던 K로 시작해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우리의 문화나 제품의 공통점은 해외에는 없는, 우리만의 ‘그것’이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란 어떤 것도 될 수 있다. 가수 사이의 B급 감성이 될 수도 있고,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는 BTS의 가사가 될 수도 있다. MLB에서는 볼 수 없는 타자들의 ‘배트 플립(Bat Flip, 홈런을 친 후 배트를 던지는 일종의 세리머니. 미국 프로야구에서는 금지되어 이를 거의 볼 수 없다)’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유행과 인기에는 그 이유가 존재하며, 이를 빠르게 파악하고 레드오션이 오기 전 장악하는 자가 승자가 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2~3년 전까지만 해도 단순 동영상 제공 플랫폼이었던 유튜브(Youtube)가 광고비를 통해 업로더를 지원하자마자 한국에서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기업형 유튜버(Youtuber, 유튜브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가 4천 명이 넘게 생겨난 것을 보면, 판단과 행동이 빠르고 추진력 강한 한국인에게 내수 시장은 너무 좁은 무대라고 볼 수 있다.

때마침 정부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과 맞물려 향후 약 355조 원에 달하는 지원 방안이 추진 중에 있으며,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물결은 이미 마련되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조명되기 시작한 K-방역과 기타 한류의 급물살을 타고 K-Eco 역시 세계 환경산업의 중심에서 한 자리 차지하게 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전세계 환경규제 강화추이와 수출기업의 대응전략」(KITA, 2018), 「환경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과제」(KIET, 2015)

* 동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5월 중국 환경산업 뉴스레터

발행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중국사무소

발행일 : 2020년 5월

기획총괄

▶ 박재현 소장(korea@keiti.re.kr)

주저자

▷ 김종균(jaykim@keiti.re.kr)

자료제작

▷ 윤영근(ygyin0919@keiti.re.kr)

▷ 임승택(stlim@keiti.re.kr)

▷ 차목승(cms0522@keiti@re.kr)

▷ 성소묘(miao2013@keiti.re.kr)

주소 : 北京市朝阳区望京街道望京SOHO T3 B座 2109室

홈페이지 : <http://www.keiti.re.kr>